



# 초점집단 논의를 중심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sup>1)</sup>

A Study on Supportive Service System for Child and Adolescent Victims of Sexual Offense through the Focus Group Discussion Method

홍 선 영<sup>2)</sup>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평등연구부

Sung Young Hong Gender Equality Research Department, Busan Women and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초록:**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들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성폭력 발생의 예방이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피해자인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와 바람직한 사회복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종사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 면접방법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서비스 연계·협력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것이었다. 지역사회 차원의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이나 장기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성 인권 교육의 실시 및 확대 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초점집단면접

**Abstract:** Frequency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have been increasing even though several strategies against sexual violence have been strengthening. It would be the bes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o prevent from sexual victimization, but it might be more important to support them not to be secondary victims of sexual assault. Focus group data on primary treatment, psycho-social adaptation both at school and at home, and healthy maturation for child and adolescent victims by using three groups were analyzed in this article. Community-level preventive measures of sexual violenc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e.g. gender-sensitive education) as well as building a community-oriented supportive networking system of the victims were suggested in this article.

**Key Words:** Sexual Assault, Sexual Victim, Sexual Violence, Focus Group Interviews

1) 본고는 2013년 10월 31일 발행된 홍선영·김희영(2013)의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보고서 2013-12인 “부산광역시 아동성폭력 피해자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ISBN 979-11-5575-005-6 93330)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다시 정리한 것임.

2) 교신: 46510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56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평등연구부 홍선영 (sunnypia@bwf.re.kr)

## 서론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정부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근절에 대한 강화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분노하는 국민의 법 감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의 일환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조치(예,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성폭력 범죄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2013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2년도 1,675명보다 1,034명 증가한 2,709명이라고 밝히고 성범죄 동향을 발표하였다. 2013년 성범죄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 건수의 44.0%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3.2%)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간의 경우 친족을 포함하여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2012년 62.2%에서 2013년 68.8%로 약간 더 높아졌으며,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2012년 14.7%에서 2013년에는 17.4%로 높아졌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등을 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24.5%를 차지했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이 16.8%, 강제추행이 36.0%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4a).

아동기에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후 정신적 상처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나중에 범죄의 새로운 가해자로 변하거나 성매매 현장으로 빠지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표창원, 2013; Garland & Dougher, 1990). 아동 성폭력 피해는 수치심과 혼란, 무지 등으로 사실이 은폐되거나 억압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에게 노출되었을 때 지지를 받기보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이미정, 2007). 또한 성폭력의 피해를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당했을

경우에는 성인기에 당한 피해와 달리 신체적 성장 및 정서적 성숙이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인 피해자들보다 불안장애나 대인공포증, 우울증의 발병 가능성이 커지는 등의 후유증이 더 심각하고 장기적이다(권희경, 장재홍, 2003; 신기숙, 2011; Friedrich, 1990).

과거에 비하여 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노출을 기피하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특성 때문에 성폭력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그 대신 경찰이나 검찰에서 발표하는 범죄통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동 성폭력 발생에 대한 전체 정보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는 셈이다(한인영, 김진숙, 박명숙, 유서구, 2008; Priebe & Svedin, 2008).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성폭력 실태조사 및 검찰청 통계를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가벼운 성추행을 포함한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피해의 1% 정도만이 검찰청의 통계에 반영되고 있으며 또 가벼운 성추행을 제외한 심한 성추행 이상을 고려할 때에도 검찰청 통계에 반영된 경우는 2.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고가 된 성폭력 사례들도 극히 일부만 확인되어 형사사법기관의 통계에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미정, 2013).

성폭력 발생 빈도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특히 수사기관에서 집계하여 발표한 공식적인 통계에 의존하여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발생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발생 추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통계자료는 경찰청의 ‘범죄통계’나 검찰청의 ‘범죄분석’과 같은 공식 범죄통계이다. 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연도별로 재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에서 2011년까지 10년 기간 동안 모든 연령대에서 성폭력 피해자 수가 증가하였는데, 가장 큰 폭으로 피해자가 증가한 연령대는 13-15세 사이가 10.5배, 그 다음이 7-12세 사이가 7.7배, 51-60세 사이가 7배, 16-20세 사이가 5.9배 순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정, 2013).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가 신고 건수 증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성인 피해자와는 구별되는 연령 및 발달과정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 인프라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피해아동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와 바람직한 사회복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여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시도된 것이었다.

## 연구방법

### 조사대상 및 방법

초점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 참가자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제1집단은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지원 경험이 있는 경찰관계자 및 변호사 등 4명, 제2집단은 해바라기센터 및 여성긴급전화 1366부산센터 종사자 등 5명, 그리고 제3집단은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시설장 등 6명으로 구성되었다. 제1집단을 대상으로 한 면접은 2013년 8월 9일에 실시되었으며, 제2집단의 면접은 8월 21일, 그리고 제3집단의 면접은 8월 23일에 진행되었다.

###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초점집단 면접은 다음과 같이 사전 준비, 면접 실시 및 자료 분석 등의 절차를 따라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면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 연구목적을 중심으로 정리한 질문지 내용을 참가자들에게 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메일을 통하여 발송했으며, 참가자들은 면접에 참가하기 이전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및 질문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질문지에 포함시킨 조사내용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의 실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 기관사이의 연계나 협력에서의 문제 또는 애로사항,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초점집단 면접은 세 집단 모두 1회씩 실시했으며(집단 규모는 4명, 5명, 및 6명이었음), 1회의 면접은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면접 내용을 녹음한다는 점을 알리고 동의를 구한 후 전 과정을 녹음하였다. 매회의 초점집단 면접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으며, 면접 과정에서의 중요 또는 특이사항은 연구자가 직접 기록하였다. 이미 실시된 집단 면접의 결과는 다음 집단의 면접에 참고하여 질문의 형식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고,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때는 연구 참여자와 다시 연락을 취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 연구결과 및 해석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 및 바람직한 사회복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점집단 면접을 실시했으며, 면접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진술한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서비스 연계·협력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요구를 분석·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제안했다.

###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sup>3)</sup>의 추가 설치

3)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을 집중 보호하기 위한 기존의 '아동청소년전용쉼터'라는 명칭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성인 피해자와는 구별되는 연령 및 발달과정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 인프라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성폭력 피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2001-2011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피해자의 연령대는 13-15세이었으며, 그 다음이 7-12세로 나타나고 있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신체적 및 정신적 후유증의 강도와 지속성은 성인 피해자에 비해 매우 커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친족 성폭력의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양육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된다. 친부나 계부 등 가장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교도소에 가야하는 경우, 그 가족은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등 피해아동의 치료와 성장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강지명, 이유진, 2013).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게 되면 그 아동에 대한 지원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 보호시설의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금으로는 아동의 양육비 외에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진용센터인 성폭력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2014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4개소에 불과한데,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여성가족부, 2014b).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적어 추가증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추가증설이 힘들 경우 현재의 시설을 확장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7)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이 포화상태로 정원보다 초과하여 수용하고 있거나 종사인력문제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상담원들의 업무가 과중하여 인원확충이나 시설확장, 새로운 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2013.6.19.)에 의해 ‘특별지원 보호시설’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음 [참고: 여성가족부(2014b)].

(전문가 15)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은 먹고 잠을 재우는 문제뿐 아니라 학생답게 살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추어야 해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은 아동양육시설 지원비를 기본으로 성폭력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비가 플러스 요인이 되어야 할 곳입니다.” (전문가 13)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성폭력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게는 양육비 이외에도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등이 바로 지원되거나 추후 정산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15)

#### 아동·청소년 피해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증언능력에 의심을 받는 대표적인 취약 집단은 아동 그리고 발달이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지적 장애를 지닌 아동의 경우 주의집중능력이 낮기 때문에 단기 기억 능력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시연을 통한 재인·재생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어려움을 보이며, 새로운 일이나 문제, 자극상황에 지식이나 기술을 잘 적용하지 못한다(윤가현, 2002; Bowles & Sharman, 2014; Manzanero, Quintana, & Contreras, 2015).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은 수사기관이 개입해도 성폭력 피해자라는 특성 및 장애인이라는 특성에 의한 이차적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정현미, 2012).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수사·지원팀뿐만 아니라 변호사, 재판부까지 이에 대한 이해 증진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학교와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다수가 학생임을 감안할 때 교육청과 학교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학업 지원이 필요하다. 즉,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

비스가 요구된다.

“베테랑 수사경찰도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 없이는 피해자 조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피해아동이 장애아동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담당 일선 경찰들도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장애아동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3)

“성폭력 피해 때문에 전학을 하거나 치료 위한 공결처리 등 학생들 입장에서 지원해주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너무 까다롭게 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과도기라서 준비되는 중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전문가 5)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전학시킬 때 전문계와 인문계 고교가 달라요. 인문계 고교는 배치를 해주는 데, 전문계 고교는 교장의 권한이 커서 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결국 자퇴를 하게 되죠.” (전문가 15)

“행정기관이면 지침이 내려와 똑같이 되면 별 상관이 없는데, 학교마다 규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전문가 7)

“학교장 재량이 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성폭력은 특수 문제이고, 피해아동을 위해서 예외적이고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게 통일된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 9)

#### 친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

여성가족부(2014a)가 밝힌 성범죄 동향에 의하면,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의 경우 친족을 포함하여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2012년 62.2%에서 2013년 68.8%로 높아졌으며,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2012년 14.7%에서 2013년에는 17.4%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가해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편이므로 실형을 선고받고서 복역을 마친 후에 출소했을 때부터 그들의 출소 정보 등을 제공받아 성범죄를 재발을 예방하는 일은 피해자 보호나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배재경, 2011; Nilsson 등, 2014).

다(배재경, 2011; Nilsson 등, 2014).

본 연구의 초점집단 면접에서는 친족 성폭력의 경우 친부의 출소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출소 고지 사실을 전달할 때는 성폭력 피해자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제안되었다. 법무부(2014)의 친권 일시정지 제도처럼 친족 성폭력 가해자는 친권제한이 필요하며, 친권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는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시 친족 성폭력 가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초·등본을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친부가 가해자인 경우, 친부의 출소 사실을 몰라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소시기가 되면 피해자에게 사전에 고지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 15)

“가해자의 출소 고지서를 보낼 때는 수신처를 교도소 이름으로 보내지 말고, 시청 이름으로 해서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13)

“친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친권상실제도 이외에 친권정지나 친권제한과 같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친권제한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일지라도 본인의 주민등록초·등본을 친족성폭력가해자 등이 열람할 수 없는 제한권이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15)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

아동·청소년 성폭력 신고의 홍보, 신고의무자 제도의 활성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서비스 및 시스템 등이 과거보다 더 잘 구비되어 신고 건수도 많이 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초점집단 면접 참여자들의 의견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위한 법과 제도, 지원시스템이 괄목할만하게 성장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는 사회적 낙인이나 2차 피해를 두려워하여 신고를 기피하

는 경향이 강하므로 성평등 인식 확산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이미정, 2013; Tapia, 2014).

“요즘에 각종 컴퓨터나 여러 가지 제도가 많아지면서 친족 성폭력을 당한 아이들도 과감하게 신고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학교의 경우에도 상담실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다보니 성폭력사실이 알려졌을 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도 빨리 알리는 등 신고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3)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신고 홍보의 효과로 인해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신고율 및 피해자 발생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2)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상담 실적이 증가된 것으로 사회적 노력 축적, 인식 개선 등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5)

#### 장기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성폭력은 신체 손상이나 생식기 관련 질환, 성병, 임신 등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후유증을 보이게 된다.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정한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빈번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심한 불안감, 우울감, 무력감, 수치심, 혼란, 분노, 배신감, 적개심, 복수심 등과 같은 심리정서적인 문제와, 자살 시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부적절한 성적 행동, 행동 위축, 공격성, 자기-파괴적인 행동, 신체화 증상, 가출, 약물 남용 등의 행동문제를 자주 보인다. 또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 개념이 부정적으로 변하며, 친밀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삶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하며,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전감을 경험하는 등 자신과 세상에 대한 핵심 신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Weaver, Griffin, & Mitchell,

2014).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각종지원을 하는 이유는 성폭력 피해자가 후유증을 극복하고 역량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려는 것이다(Matulis, Resick, Rosner, & Steil, 2014).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내면 상처를 치유하고 심신이 회복되어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리치료 기관에서도 성폭력의 특성을 잘 알면서 치료적 접근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기관을 찾아야하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치료적 관계가 더 필요한 거죠. 치료를 해놓으면 청소년기나 성인기로 넘어갈 때 트라우마를 덜 받게 해서 지나갈 수 있으니 중요합니다.” (전문가 15)

“피해자들에게는 상담 및 심리치료지원이 필요한데 피해자들은 의료지원을 받다보면 끝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상담이 어려워요.” (전문가 11)

“피해자 부모님들은 치료만 해달라고 해요. 심리평가를 통해서 심리치료가 들어가야 하는데 심리평가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성폭력과 관련된 질문하고, 본인이 느끼는 부분 등에 대해 물어봐야 하니 꺼려하셔서 거부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 몸에 상처 났을 때 얼마나 다쳤는지 보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보는) 심리평가가 있는데 다 거부감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전문가 5)

“아동·청소년 성폭력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심리치료 부분의 인원을 확충하고 13세 미만 아동이라도 맡아서 한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문가 13)

#### 지역사회 차원의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시설간의 기관간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은 피해자 지원활동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이다.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은 서비스 지원 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역할 중복 조정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해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강지명, 이유진, 2013). 연계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계협력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관들이 협조적인 전달체계를 갖추어 유기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초점집단 면접을 통해 수렴되었다. 각 지역별 전문가들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기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연계·협력한다면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사회복지분야나 상담분야 종사자들과 네트워크가 잘 되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 특성이 고려가 되고 2차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 4)

“경찰이 (선불리)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나 친족 성폭력 의심사례, 아동학대 같은 경우 성 학대가 의심되어 조사해야 하면, ..... 이런 경우 동사무소 사례관리팀이나 아동보호종합센터에 협조를 구해서 파악하기도 합니다.” (전문가 4)

“구청, 학교,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해바라기센터 등 각각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유기적으로 각 기관의 역할들과 네트워크 되어 체계가 이루어지면 좀 더 나은 피해자 지원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 5)

“구청마다 회의를 잘 하는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에 예산이 내려오니 여성과 아동 보호를 위해 관심을 가져 주어서 좋습니다. .... 하지만, 구청 자체예산도 확보하여 구청에서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면 지역연대의 활동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 13)

문가 13)

“지역의 피해자 지원 위한 실질적 네트워킹 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형태보다 각계 전문가들이 네트워킹해서 직접 피해자에게 상담, 심리치료 등이 연계되었으면 합니다.” (전문가 5)

### 성 인권교육의 실시 및 확대

성 인권이란 인간이 성적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를 통하여 성적 주체로서의 자기보호 뿐 아니라 성적 인간으로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인간적 자질을 형성시키며,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성정체성 및 성역할을 인식하고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해준다(Richardson, 2000). 또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범죄 예방과 함께 성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고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건강한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실시한다(여성가족부, 2014c).

기존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위험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오히려 본인의 잘못으로 인식하게 하는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기존의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더 나아가 인권 감수성을 높이면서 성적 자기결정권 등 관련 권리를 보장받으며 성적 주체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본 지식, 태도를 익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교육의 실시를 통해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의 함양이 필요하다. 또 성 인권교육은 학부모 등 성인에게도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의 원인을 아이들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최소

한의 위험상황 감지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교육대상 확대가 필요하며 학부모 등 성인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전문가 5)

“성폭력 예방교육을 관공서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학교에서 부모교육이 필요해요. 부모교육이 의무적인 과정이 되어야 해요. 성폭력 예방교육은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끊임없이 교육받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문가 7)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모 대상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가정에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일상적으로 예방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문가 1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잘못된 성인식 개선, 음란물의 유해성,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성 인권교육이 절실합니다.” (전문가 3)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 바람직한 사회복귀, 및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종사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서비스 연계·협력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초점집단 면접을 실시했다. 초점집단 면접은 2013년 8월중에 세 차례의 면접을 실시했으며, 세 차례의 면접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15명이었다. 면접 내용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추가 설치의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성인 피해자들과는 연령 및 발달과 정상의 특성에서 구별된다. 또 친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의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양육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역시 신체적 및 정신적 후유증의 강도와 지속성은 성인 피해자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아동·청소년 피해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가 요구되는 점이다. 아동과 함께 증언능력에 의심을 받는 대표적인 취약 집단이 장애아동이다(Stolzen & Lyon, 2014).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은 수사기관이 개입할 때 성폭력 피해자라는 특성과 장애인이라는 특성상 오히려 이차적인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수사·지원팀뿐만 아니라 변호사, 재판부까지 이 문제에 대한 이해증진이 필요하다. 한편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초중고교 학생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학업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청에서도 피해자 특성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친족 성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제법 방지를 위한 제재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경우 가족과 친척에 의한 가해 사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아동 상대 성폭력 가해자는 제법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나 범죄자의 제법방지를 위한 조치가 매우 절실하다(Harkins 등, 2015; Nilsson 등, 2014). 친족 성폭력의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출소 사실을 고지해줄 필요성이나 또 가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 초·등본을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sup>4)</sup>

넷째,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비난 등의 사회적 낙인이나 2차 피해를 두려워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Koepke, Eyssel, & Bohner, 2014). 그러므로 성 평등 인식 확산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통

4) 주민등록법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4.1.>



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다섯째, 피해자를 위한 장기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내면 상처를 치유하고 심신이 회복될 수 있다면 역량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Karakurt & Silver, 2014).

여섯째, 지역사회 차원의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의 강화이다.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시설들의 기관 간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은 피해자 지원활동의 근간이 된다. 연계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계협력의 부족문제가 발생한다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관들이 협조적인 전달체계를 갖추어 유기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 인권교육의 실시 및 확대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교육의 실시를 통해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의 함양이 필요하다. 성 인권교육은 학부모 등 성인에게도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권희경, 장재홍 (2003). 성폭력 장기후유증 척도의 개발 및 타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 (3), 551-566.
- 강지명, 이유진 (2013). 성폭력범죄 가·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연구*, 22, 33-69.
- 배재경 (2011).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 (2014).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친권 정지·제한 제도 도입*. (2014. 04. 01. 보도자료).
- 윤가현 (2002). *정신지체장애와 성*. 광주: 전남대

학교 출판부.

- 신기숙 (2011).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 *한국심리학회지*, 30 (4), 1255-1287.
- 여성가족부 (2014a).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아는 사람에게 의한 피해를 68.8%로 높여* (2014. 12. 29.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2014b). *201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133-10)
- 여성가족부 (2014c). *2014년 학교 성 인권교육 운영지침*. (2014년 5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공동 발행)
- 이미정 (2007). *현행 공소 시효의 문제점: 성폭력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07년 2월 27일 개최된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협의회’ 주최 아동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이미정 (2013). 성폭력피해의 특성과 발생현황. *젠더리뷰*, 2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간, 2013 여름호), 13-23.
- 정현미 (2012).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이화젠더법학*, 4, 73-95.
- 표창원 (2013). *프로파일러 표창원의 사건추적*. 서울: 지식의 숲.
- 한인영, 김진숙, 박명숙, 유서구 (2008). 근친 성학대 피해 아동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7, 199-240.
- Bowles, P., & Sharman, S. (2014). The effect of different types of leading questions on adult eyewitnesse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8, 129-134.
- Friedrich, W. (1990). Sexual victimization and sexual behavior in children: A review of recent literature. *Child Abuse & Neglect*, 17, 59-66.
- Garland, R., & Dougher, M. (1990). The abused/abuser hypothesis of child sexual abuse: A critical review of theory and research. In J. R. Feierman (Ed.), *Pedophilia: Biosocial*

- dimensions* (pp. 488-509). New York: Springer-Verlag.
- Harkins, L., Howard, P., Barnett, G., Wakeling, H., & Miles, C. (2015). Relationships between denial, risk, and recidivism in sexual offender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4*, 157-166.
- Karakurt, G., & Silver, K. (2014). Therapy for childhood sexual abuse survivors using attachment and family systems theory orientation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42*, 79-91.
- Koepke, S., Eyssel, F., & Bohner, G. (2014). "She deserved it" effects of sexism norms, type of violence, and victim's pre-assault behavior on blame attributions toward female victims and approval of the aggressor's behavior. *Violence Against Women, 20* (4), 446-464.
- Manzanero, A., Quintana, H., & Contreras, M. (2015). (The null) Importance of police experience on intuitive credibility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6*, 191-197.
- Matulis, S., Resick, P., Rosner, R., & Steil, R. (2014). Developmentally adapted cognitive processing therapy for adolescents suffering from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fter childhood sexual or physical abuse: A pilot study.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7* (2), 173-190.
- Nilsson, T., Carlstedt, A., Baudin, C., Jakobsson, C. Forsman, A., & Anckarsäter, H. (2014). Intra- and extra-familial child sexual abusers and recidivism in Sweden: a 10- to 15-year follow-up study.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25* (3), 341-361.
- Priebe, G., & Svedin, C. (2008). Child sexual abuse is largely hidden from the adult society: An epidemiological study of adolescents' disclosure. *Child Abuse & Neglect, 32* (12), 1095-1108.
- Richardson, D. (2000). Constructing sexual citizenship: Theorizing sexual rights. *Critical Social Policy, 20*, 105-135.
- Stolzenberg, S., & Lyon, T. (2014). How attorneys question children about the dynamics of sexual abuse and disclosure in criminal trial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20*, 19-30.
- Tapia, N. (2014). Survivors of child sexual abuse and predictors of adult re-victim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 forwar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Sciences, 9*, 64-73.
- Weaver, T., Griffin, M., & Mitchell, E. (2014).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epression, and body image distress in female victims of physical and sexual assault: Exploring integrated response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35* (4), 458-475.